

##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 근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속 비화



권영민 교수의 문학 콘서트

권영민 지음

시대의 풍속에 떠밀려 균형을 잃어가는 삶의 기로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혹은 그 가치와 방향을 문학 속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문학의 역사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가 근현대 문학·미술 작가들의 삶과 작품을 조망해 정리한 '권영민 교수의 문학 콘서트'를 펴냈다.

책에는 해방 전후의 격변 속에서 한국 사회의 지표가 됐던 작품들과 보편적 삶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했던 작가들의 작품속 비화가 담겨 있다. 저자는 작품에 깃든 문학 거장들의 정신을 풀어내 참다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조명한다.

저자는 중앙의 일간지에 연재했던 탐방기 '권영민의 그때 그곳'과 각지에서 진행했던 '권영민의 문학 콘서트' 강연 중에서 대중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별해 수록했다.

무엇보다 작품 속 뒷이야기들을 통해 삶과 문학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운동주의 원고 노트를 소중히 간직한 후배 덕분에 운동주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눈감은 후어나마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일본의 한국어 말살 정책으로 발표하지 못한 시들을 '청록집'으로 펴내면서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던 박목월과 조지훈의 만남 등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친우의 천재적 예술적 고뇌를 이해하고 이를 시와 그림으로 탄생시킨 이상과 구분용의 우정, 최소한의 삶을 꾸려가던 최태환의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 예술의 역할을 강조했던 한용운의 기개 등도 조명한다.

책은 일반 문학도서와 다르게 저자의 직접적 체험이 곳곳에 녹아 있어 더욱 생생한 느낌을 준다. 가을비 내리던 날 청계천 한쪽방 거리에서 정지용의 '백록담' 초판본을 구한 이야기, 이상의 소설 '실화' 속 카페 NOVA를 찾아 신주쿠를 해낸 이야기 등은 읽은 이들에게 흥미로운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책은 "오직 인간의 본질적인 표현이며 그 새로운 창조"인 문학 안에서 공감을 이룸으로써, 인생의 파도를 헤쳐 나가기 위한 저마다의 좌표를 설정하도록 나침반의 길잡이를 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해냄·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지나온 삶을 되돌아 본 자신의 내면 고백



나는 왕이며 광대였지

오현종 지음

스쳐가는 무수한 감정이 인생에 생채기를 내는 순간들을 세밀한 시선으로 포착한 오현종의 세 번째 소설집 '나는 왕이며 광대였지'가 출간됐다. 그간 발표해온 작품들로 오 작가는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변용하며 한국소설의 지평을 넓혀온 작가로 평가받았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녀의 상상력이 극한으로 뻗어나간 후에도 그 끝은 다시 일상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소설집에서도 작가 특유의 기발한 서사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이번 작품들을 매개로 소설가로서 자신의 자의식과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본다는 점이다.

이번 소설집에 등장하는 몇몇의 인물들은 꽤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인물들은 섬세한 성격 때문에 타인이 감춘 날카로운 통찰을 기민하게 알아채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쓸쓸하고도 편안한 기분을 느낀다.

표제작 '나는 왕이며 광대였지'는 운명이 우리의 삶을 휩쓰는 장면을 극단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소설화한 작품이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한 여인은 자신이 밀실에 감금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밀실 밖의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위협당한다.

작가는 저자의 말에서 "나에게는 이 책에 실린 여덟 편의 소설이 십 년간 지도 없이 움직여온 내 마음의 경로로 읽혔다"며 "비극 속의 왕이든 희극 속의 광대든 정오의 주사위 놀음으로 결정된다 해도 괜찮다. 이제는 내게 어떤 역이 주어지든 충실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문학동네·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우리시대 뮤지션 이야기

### 대중음악가 열전

최성철 지음



'위대한 가왕' 조용필, '뛰어난 시장성의 개척자' 신중현, '모던 포크의 페르소나' 한대수, '발군의 뮤지션 마왕' 신해철, '문화적 아이콘' 서태지 등...

두말 할 필요 없는 한국 대중음악사에 빛나는 가수들이다. 이들은 우리 시대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대표 뮤지션들이다.

지금 한국은 대중음악을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한류시대를 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아시아를 넘어 멀리 남미나 유럽 중동까지도 아이돌 가수의 음악과 춤을 즐기고 있다. 이러한 음악의 원류에는 한국인들의 고유 심성인 흥이 기반을 둔다고 한다. 그러나 좀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선배 가수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페이퍼 크리에이티브 최성철 대표가 펴낸 '대중음악가 열전'은 대표 뮤지션 36인의 음악과 삶, 경향 등을 조명한다.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며 활발하게 활동했던 음악인들은 당대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노래로 표현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위로 받았던 박찬



'위대한 가왕' 조용필



'문화적 아이콘' 서태지

시간들이 있었다. 그들의 음악이 전하는 위안과 위로의 전언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책은 모두 7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는 더 이상 수사가 필요 없는 가왕 조용필을 필두로, 서구 대중음악을 들여놓았던 신중현, 청의성과 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담은 작품들로 대중음악사를 다시

쓰게 했던 산울림 김창완, 포크 블루스의 마에스트로 이정선 등 레전드급의 삶과 음악이 소개된다.

2부에서는 끊임없는 재평가와 재생산의 장을 열기 시작한 김광석, '삶을 채워주던 진짜 노래' 김현식, '비평과 음악사적 위상 위에 올라앉은 미학적 가치' 김 유재하, '언더그라운드'의 대부' 조

동진의 삶과 음악을 추억한다.

3부는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랴'는 주제로 개성 강한 가수들을 들여다본다. 한국적인 록의 틀극화, 시인과 촌장 하덕규, 대중음악의 아웃사이더 김민기 등을 만난다.

4부 또한 오래 기억될 이들도다. '한국적 블루스의 전이(轉移)' 신촌블루스와 시대정신을 견지했던 노찾사, '우리가 두고 온 꿈들의 동물원, 대한민국 팝 발라드 벨 에포크의 주역 이문세와 하이영훈을 조명한다. '환타스틱 공연지선'으로 일컫는 이승환의 삶과 음악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5부의 뮤지션들도 만만치 않다. 문화적 아이콘 서태지를 비롯 '최장수 록 명가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랑과 평화, '걸 크러쉬의 원조' 이선희 등의 이야기도 있다. 6부에는 '황금시대(黃金時代)'를 열어젖힌 신승훈과 청년문화의 결실 양희은, '일세지웅(一世之雄) 명인보컬' 이승철도 만날 수 있다.

7부는 작은 거인 김수철, 'K-소울의 파이오니어' 김건모를 비롯해 대중과 전통의 벽을 허문 국악예인 장사익, 유류 시인자 투쟁하는 개혁신 정태춘도 수록돼 있다.

"친하거나, 아프거나, 그리운 시절의 영광을 반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음악이 전하는 위안과 위로의 전언에 우리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대한민국 대중 음악사에 드리는 이들의 너른 음악적 그늘과 음악적 세례를 받지 않은 이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위로가 그리운 우리이고, 위안이 아쉬운 세상이기에는..."

〈애스앤아이·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쓴 칸트의 생애와 철학사상



칸트, 근세철학을 완성하다

강성률 지음

'순수 이성 비판'의 저자 칸트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딛고 철학의 일가를 이룬 철학자다. 그의 학문적 성과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의 생애와 삶은 적잖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칸트의 생애와 핵심사상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광주평통포럼 연구위원장인 광주교대 강성률 교수가 펴낸 '칸트, 근세철학을 완성하다'는 칸트의 출생, 생활방식, 습관 등 사생활뿐 아니라 칸트 철학에 대한 평가 등이 망라돼 있다.

160cm도 안 되는 작은 키와 기형적인 가슴을 지녔던 칸트가 46세라는 뒤늦은 나이에 교수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괴니히스베르크 시민들이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규칙적인 습관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철학의 천재'가 되었던 칸트의 다양한 모습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기술돼 있다. 〈글라이더출판사·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유머·해학·풍자가 넘치는 서민의 정치 사이드



B급 정치

서민 지음

"내가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의 방어법을 이해 못하고 그냥 칭찬인 줄 안 모양이다."

유머와 반전과 해학과 풍자와 위트가 넘쳐흐르는 기생충학자 서민의 '서민적' 정치 에세이 'B급 정치'가 출간됐다. 한

국 민주주의를 파탄낸 박근혜에게 욕을 하는 것인지 칭찬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박근혜는 아이들에게 대통령의 꿈을 심어주고 있었다. 대통령만 한 '꿀지렁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2억 1200만원의 연봉이 꼬박꼬박 입금되고 죄를 짓고도 관저에 있을 수 있는 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결코 박근혜를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같은 방어법을 탄생하게 해준 박근혜에게 바치는 헌사(獻辭)이다.

〈인물과사상사·1만50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 혜은이 디너쇼

2017.04.11.(화)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165,000 원 (VAT포함)

*Hye Eun Lee*  
2017 Dinner Show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